

해남 지역활성화 팔 걷어붙였다

범군민 투자유치 활동 나서...상권 살리기에 힘 모아

“기업하기 좋고 인심 좋은 해남으로 오세요.”
 해남군민들이 기업 투자유치와 침체된 상권 살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해남지역 14개 읍·면 주민들은 범군민적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읍·면 기업 사랑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읍·면별 주민대표 14명으로 구성된 기업 사랑회는 출항기업인에 대한 자료 수집과 기업유치 정보접수창구 등을 개설, 1읍·면 1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읍·면 기업 사랑회 관계자는 “나후된 해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것 뿐”이라면서 “해남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역민 모두가 나서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해남군도 이같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투자유치 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은 기업 사회화를 비롯해 범군민적 기업유치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12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해남 5개년 계획’을 수립, 투자유치 관련 지원 조례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또 투자유치 유공 군민을 비롯해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남군 산이면 상가 번영회도 침체된 상권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산이면 상가 번영회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등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 이들은 돌고래 담요

리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 메뉴를 개발하고 입간판 등을 정비하는 등 전국 최고의 닭 요리 테마촌을 만들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서지 음식점들도 바가지 요금 없는 해남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인접지역의 해남 이미지 만들기에 한창이다.
 김영관 해남군 전략산업담당장은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투자유치와 상권 살리기에 나선 것은 전국적으로 찾아 보기 힘든 사례”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광산구 청사 맞은 편에 공용주차장 조성

140면 규모...민원인 등 이용

광산구가 청사 맞은편 공터에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다. <사진>
 광산구는 그동안 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돼 있던 공터를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140면 규모의 공용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구는 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민원인들의 보다 편리하



개 구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목포 석현동 자연녹지 용도변경 논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청...환경단체 등 반발

자연녹지인 목포시 석현동 일부 지역을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석현동 산 40-1번지 일대 6천㎡의 자연녹지는 산림이 우거져 있고 해당 신도시와 인접해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부지 소유자인 A씨가 지난 7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임목도(단위 면적당 수목밀도)비율이 50% 미만이며 경사도 14도 이하로 개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시계획위원인 시의회 B의원은 “임목도가 50% 이상인데도 A씨가 모 조합에 의뢰해 조사한 임목도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가 이곳에서 지난해 132그루의 나무를 불법 벌채한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가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자의 임목도 조사 결과만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지난달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회 C의원은 근린생활시설 지구 변경 허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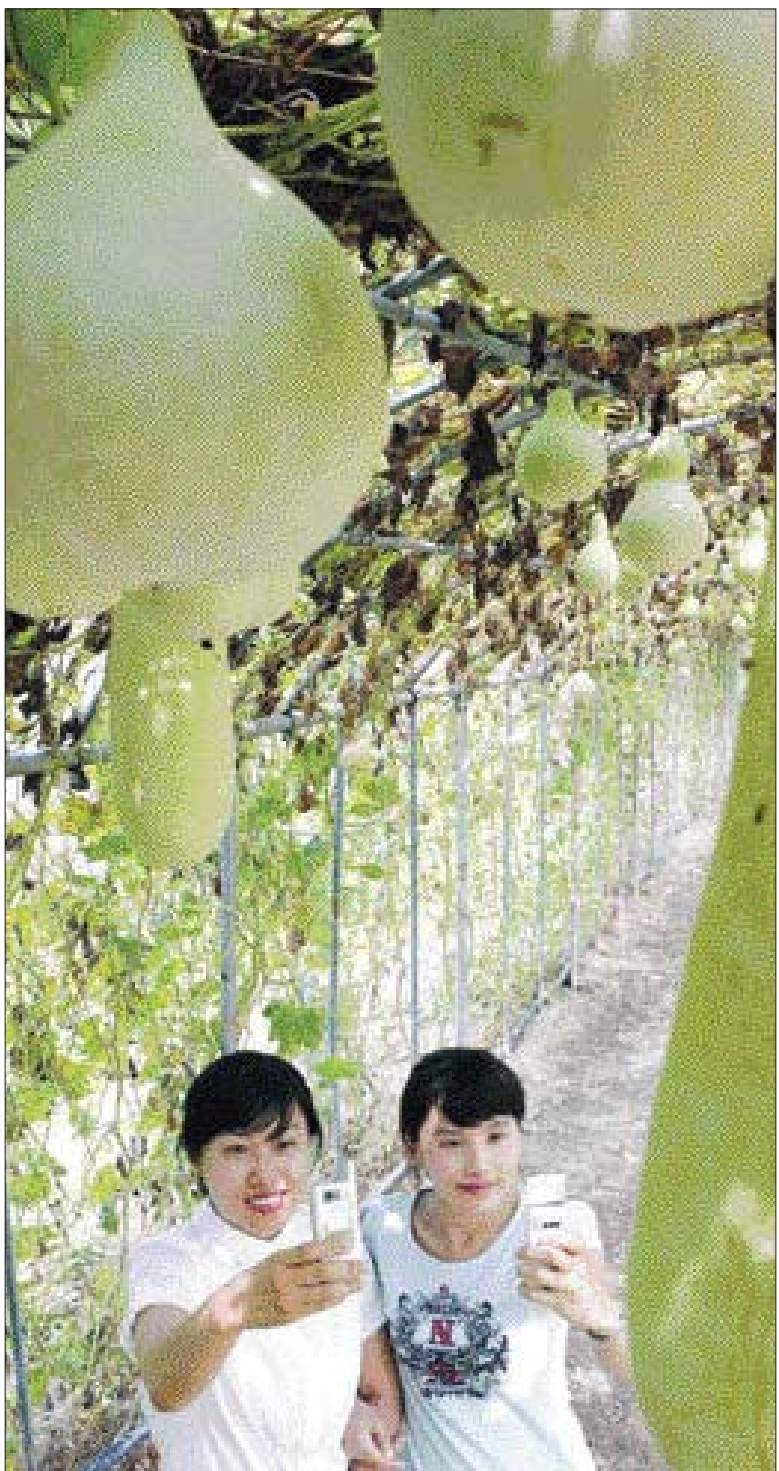
고추 농가 탄저병 비상

폭염으로 2배 이상 증가...방제 서둘러야

폭염이 계속되면서 광주·전남 고추 농가에 탄저병(검은 썩음병)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영광·신안 등을 중심으로 고추 탄저병 발병이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탄저병 발병이 많아진 것은 7월부터 계속된 폭염 때문으로 해남지역의 경우 7·8월 들어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28일에 달했다.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날씨

▲연작재배 ▲질소질이 많은 토양 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저병에 걸린 고추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심하면 고추열매가 썩으며 떨어져 버려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발병 초기에 5~7일 간격으로 3~4회 정도 적용약제를 뿌리면 방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주렁주렁’ 함평 조롱박 터널



입추인 7일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탐스럽게 영근 조롱박 터널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폭 4m, 길이 200m의 이 터널에는 다양한 조롱박을 비롯해 호박과 수세미, 여자 등 관상식을 수천여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새우양식장 이동병원 운영

수산과학원 목포사무소

국립 수산과학원 목포 수산사무소(소장 이항복)가 지난 5·6일 이틀간 서해특성화 연구센터와 합동으로 무안·신안 관내 새우 양식장을 대상으로 이동병원을 운영했다.
 목포 수산사무소 이동병원은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우 양식장의 질병 및 양식관리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올해 신안·무안·목포 지역의 새우양식장은 78개소(목포 1, 무안 12, 신안 64개소) 363.8ha로 전국 생산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장흥서 한방산업발전방안 토론회

8일 전남도·보건복지부 참여

전남도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장흥군이 주관하는 한방산업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8일 장흥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장흥생약초 한방특구에서 추진 중인 한방산업진흥원의 건립 상황·주요 사업 계획, 한방산업 추진현황과 전망, 장흥군 생약재배 현황과 산업화 계획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

론이 전개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한방산업발전방안 토론회는 연계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이날 워크숍에서 한약 종자를 이용한 새싹채소 브랜드화 사업, 한약재를 사용한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연구과제 제출 등 다양한 한방산업 추진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 영어캠프 영어가 재밌어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화순 만연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GVCS(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원어인 교사로부터 영어

를 배우고 있다. 이번 영어캠프에는 초등 4·5년생 18명과 중등 1·2학년 70명 등 88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화순군 제공>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광빌딩3층)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불빛 파장 이용 친환경 해충포획기 나왔다

생태기술연구소·전남대 팀 '트랩피아' 출시

해충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빛 파장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포획기가 개발됐다.
 생태기술연구소(소장 이준길)와 전남대학교 식물생명공학부 해충학 담당 함연수 교수 팀은 최근 과수원과 시설원예, 축사시설 등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해충포획기 '트랩피아(사진)'를 출시했다.
 트랩피아는 기존 해충 포획기인 삼파장 유아등과는 달리 약한 빛을 이용해 해충을 잡는 방식으로 작물 생육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특히 밝은 빛을 이용할 경우 원거리 해충들까지 유인하는 단점이 있으나 트랩피아는 별빛 파장 정도의 은은한 밝기를 이용해 지



근거리 해충만을 포획해 살충한다. 트랩피아는 나방류, 말벌류, 풍뎉이류, 모기, 파리류 등의 해충을 방제하는 효과가 탁월해 친환경 농작물 작목에 유익하게 쓰일 전망이다. 소비자가격은 13만6천원~34만원까지 다양하다. 문의 (061)753-2672.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